

문화적 갈등으로 본 『변강쇠가』

최 등 현 (군산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변강쇠가』에 나타난 갈등 |
| 2. 『변강쇠가』의 성을 보는 시각 |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변강쇠가』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재 정리하여 해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강쇠가』에 나타난 갈등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강쇠/옹녀와 향촌사회와의 갈등이며, 둘째는 강쇠와 장승과의 갈등, 셋째는 강쇠와 유랑민과의 갈등이다.

강쇠와 옹녀는 조선조 후기 농촌사회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생성된 빈민들로, 체제의 모순을 외화(外化)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과도한 성적 행위와 일탈을 보이는 것은 당시 향촌사회가 자체 모순을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로 치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강쇠와 옹녀가 만나 도시로 흘러든 뒤에는 강쇠가 옹녀를 수탈하게 되는데, 이는 강쇠가 사회적 모순에 항거하지 않고 체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수탈하기 때문이다.

강쇠와 장승의 갈등은 사회 밖으로 쫓겨난 강쇠와 향촌사회의 갈등이다. 장승은 사회 밖으로 축출된 유랑민으로부터 향촌사회 내부를 지키는 경계 표지다. 강쇠가 장승을 빼다 때는 행위는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강쇠는 장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강쇠의 죽음은 사회 밖으로 축출된 이들의 도전에 대한 경계 안의 공동체의 응징이다.

『변강쇠가』에 나타난 마지막 갈등은 강쇠 치상을 위해 옹녀가 유인한 사람들과 죽은 강쇠의 갈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쇠의 주검을 장승으로 보았다. 강쇠는 죽어서 향촌사회를 지키는 장승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징치를 당하는 유랑인들은 강쇠의 죽은 몸이 대리하는 향촌사회에 의해 징치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변강쇠가』는 시종일관 조선조 후기 농촌사회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배태된 부정적 인물인 강쇠와 옹녀,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밖으로 축출되어 유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향촌사회의 자기 보호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변강쇠가, 강쇠/옹녀, 문화적 갈등, 향촌사회, 장승, 유랑민

1. 머리말

『변강쇠가』는 직설적인 성적 표현 때문에 우리문학사상 매우 특별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왔다.¹⁾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는 않지만,²⁾ 『변강쇠가』의 핵심 소재가 ‘성’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변강쇠가』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모두 성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변강쇠가』 연구가 성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

-
- 1) 초기의 『변강쇠가』에 관한 연구들이 특히 그러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변강쇠가』에 표현된 ‘성’이 충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박관수, 『『변강쇠가』의 음란성 재고』, 『고소설연구』 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189-190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 2) 앞에 든 박관수의 논문이나 정하영의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성적 측면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성’은 목적이 아니라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보조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관수, 앞의 논문 ; 정하영, 『『변강쇠가』 성담론의 기능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1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참조.

은 아니다. 성을 연구의 중심 또는 밑바탕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변강쇠가』 연구는 인물형상, 갈등구조, 설화나 제의와의 관련, 여성주의적 관점, 미적 특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³⁾ 이제는 『변강쇠가』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⁴⁾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⁵⁾는 『변강쇠가』의 해석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논란은 있지만 『변강쇠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가 논의의 지평에 올려져 활발하게 탐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문학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변강쇠가』도 다양한 연구방법과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과 문제의식으로 『변강쇠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변강쇠가』가 당시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변강쇠가』가 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변강쇠가』에 나타나 있는 성적인 표현이나 일탈이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진 일반적 현상이었으며, 당시 향촌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만큼 심각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변강쇠가』에 표현된 성적인 표현이 다른 소설이나 판소리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강쇠가』만의 특성이 아니다. 그리고 『변강쇠가』만의 특징일 수도 없다. 판소리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생산에 집단이 관여되어 있다면 이는 분명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강쇠가』를 일회적인 특수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양하고, 역사적 전환기에 새롭게 부상한 문화적 현상의 일부로서 기왕의 가치관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전에도

3) 이에 대해서는 이정원, 『『변강쇠가』의 성 담론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 2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참조.

4) 김종철, 『『변강쇠가』의 미적 특질』,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1993.

5) 이정원, 앞의 논문.

『변강쇠가』에서의 갈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조’에 치중해 있었다. 여기서는 ‘구조’를 외면하지는 않되 문화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2. 『변강쇠가』의 성을 보는 시각

『변강쇠가』를 보고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적나라한 성에 관한 표현이다. 예컨대 남녀 성기에 관한 비유적 묘사로 된 이른바 ‘기물타령’,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대담한 성행위에 관한 표현 등은 다른 작품에서는 보기 힘들다. 조동일은 “판소리 중에서 가장 음란한 내용이어서 부르지 않게 된 것 같다”⁶⁾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연구자들도 『변강쇠가』의 특징으로 “두드러진 성의 노출”⁷⁾을 들기도 하고, 아예 “호색문학”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⁸⁾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변강쇠가』를 외설적인 작품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변강쇠가』에 두드러지는 성의 노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석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는 데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도한 성 노출의 주체인 변강쇠와 웅녀의 인물의 성격이나 성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변강쇠가』에 나타나는 성적 표현은 『변강쇠가』가 불리어지던 18-9세기의 상황 속에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강쇠가』의 구조에서 볼 때 성은 부수적 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작품의 핵심은 ‘강쇠의 장승 훼손과 그로 인한 죽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

6) 조동일, 『판소리의 전반적 성격』,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78, 14쪽.

7) 김종철, 앞의 논문, 276쪽.

8) 이에 대해서는 정하영, 앞의 논문, 172-173쪽 참조.

이 성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장면의 강렬한 인상에 사로잡혀 ‘일탈적 성 행위’를 작품의 핵심으로 보고 그의 죽음도 그와 연관해서 이해하기 때문이다.⁹⁾

정하영은 우선 『변강쇠가』에서 성이 부수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독자들이 성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장면의 강렬한 인상에 사로잡혀 작품의 핵심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 장면의 강렬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기물타령, 업어주기, 사랑가, 성행위 장면 등은 『춘향전』이나 『고금소총』 소재 설화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였다.¹⁰⁾ 그렇다면 『변강쇠가』의 성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들은 작품의 핵심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흔히 나오는 내용을 모른 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성에 대한 윤리적 통제가 엄격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강쇠가』의 앞 부분에 등장하는 「기물타령」은 『고금소총』에 실려 있는 「주장군전(朱將軍傳)」이나 「관부인전(灌夫人傳)」¹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장군전」은 남자의 성기를 의인화하여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이고, 「관부인전」은 여성의 성기를 의인화하여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이다.

가)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맹장군이 관부인이 주인인 연못(음호)으로 쳐들어오자 관부인은 천군에게 상소를 올린다.) 관부인의 상소를 접한 천군(마음)은 쾌히 승낙하고, 관부인이 자리잡고 있는 주변의 여러 부분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듣거라! ‘제중서(배꼽)’ 너는 적침을 망보며 감시하는 일을 맡아, 쳐들어오는 적을 지체없이 보고하라. 그리고 ‘황문랑(항문)’ 너

9) 정하영, 위의 논문, 178쪽.

10) 정하영, 위의 논문, 180쪽.

11) <관부인전>과 <주장군전>은 김현룡 편역, 『고금소총』 4, 자유문화사, 2008, 247-255, 335-342 참조.

는 비록 입에서 나쁜 냄새를 풍기지만 평소 나팔을 잘 부니, 적이 가까이 접근하면 즉시 나팔을 울려 보고해야 한다. 또한, ‘모참군(음모)’ 너는 우림위(많은 털들)를 거느리고 지키다가 적이 쫓아내려 돌진해 들어올 때, 검정 새끼로 목을 묶어 압송해야 하느니라. 또, ‘현(음순)’ 너는 방어사가 되어 지키고 있다가 적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면, 꼭 오므려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음핵)’ 너는 어사가 되어 말뚝과 도끼를 사용해 적이 들어와 교전을 할 때, 머리 뒤를 두들겨 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라.”(『관부인전』 중에서)¹²⁾

나) “앞서 이성 사람 맥효동(麥孝同. 여성들의 수음용 기구로, 밀가루를 반죽해 남자의 양근 모양으로 만들어 말린 뒤 단단히 굳혀서, 여성들이 음호에 삽입하여 수음 행위를 하던 기구)이 침체된 그 연못(寶池)을 뚫으려고 사사로이 방략을 획책하고 있었으나, 주맹 장군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곧 부끄러워하면서 물러갔다.

이리하여 연못 언덕에 이른 주맹 장군은 군사들을 정돈한 뒤, 사방을 둘러보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 옥문산(玉門山)이 자리잡았고, 남쪽으로는 황금굴(黃金窟)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서로 붉은 언덕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바위 하나가 솟아 있어 그 모양이 감의 씨와 비슷하니, 진실로 술사(術士)들이 말하는 이른바 요충의 땅이로다. 그야말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들어가 개간해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노라.” (『주장군전』 중에서)¹³⁾

위 인용문은 『관부인전』과 『주장군전』의 일부이다. 『관부인전』에는 음호, 배꼽, 음모, 음순, 음핵 등 여성 성기가 묘사되고 있고, 『주장군전』에는 여성용 자위기구와 여성 성기와 발음이 같은 단어는 물론 성기의 모양을 묘사한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한문으로 된 데다가 성행위를 의인화하여 전쟁이야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고 성행위의 묘사를 여실하게 했지만 성기나 성행위가 즉각적, 직접적으로 환기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행위의 자초지종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12) 김현룡 편역, 위의 책, 250쪽.

13) 김현룡 편역, 위의 책, 339쪽.

서는 일단 성기의 외양만을 표현하고 있는 기물타령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고금소총』¹⁴⁾에는 800편이 넘는 소화(笑話)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40~50%가 농도 짙은 육담이다.¹⁵⁾ 최근에 문학동네에서는 『조선 후기 성 소화 선집』을 김준형 번역으로 냈는데, 여기에는 11권의 패설집에서 뽑은 234편의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김준형에 의하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선조 이후의 패설집은 총 23종에 이야기는 1,500편을 넘는다고 한다.¹⁶⁾ 또 조선 후기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 장시조와 탈춤 등도 다수 출현한다. 『꼭두각시놀음』에 등장하는 흥동지 인형은 아예 발가벗은 모습인데, 성기에 음모까지 여실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극중에서 오줌을 누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당시의 성적 담론에 대한 태도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유추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을 것 같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보아도 낫 뜨거운 이야기들을 이렇듯 공공연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 초구나 중기에 편찬된 다수의 패설집을 보아도 성 이야기를 금기시켰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성담론은 집단의 유희를 돋우는 장치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음만 확인할 수 있다. 정작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듯한 성 이야기. 그 이야기에 도덕적인 잣대를 대기 시작한 때는 19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그 양상은 더욱 강해진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강조하는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 이야기는 부정해야 할 대상이 되어 왔던 셈이다.¹⁷⁾

14) 여기서 말하는 『고금소총』은 소위 유인본 『고금소총』을 가리키는데, 이는 11편의 설화집에 실린 824종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김현룡은 이 『고금소총』을 번역하여 출판한 바 있다.

15) 김현룡 편역, 앞의 책, 6쪽.

16) 김준형 옮김, 『조선 후기 성 소화 선집』, 문학동네, 2010, 638쪽.

17) 김준형 옮김, 위의 책, 645쪽.

김준형의 주장을 따른다면 『변강쇠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 성 이야기에 도덕적인 잣대를 대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기 때문이다.¹⁸⁾ 정병설도 조선 후기에 와서 성적 통제가 극에 달하긴 했지만 그것도 상층 여성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남성이나 하층민들은 성적 통제의 선 밖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다고 했다.¹⁹⁾ 그렇다면 『변강쇠가』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징계(懲戒)’의 의미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금소총』과 같은 패설류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과 『변강쇠가』를 같은 층위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패설집에 실려 있는 성관련 이야기들은 한문으로 된 독서물이다. 출판되지 않고 모두 필사본으로 전해왔다는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은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식자층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읽거나, 술자리에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곧 한문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층계급 내에서 특별한 기회에 제한적으로 소비되고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대중들 앞에서 공개리에 무제한적으로 통용되거나 소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변강쇠가』는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노래로 부르는 공연물이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리에 향유된다. 이러한 소비와 향유 방식 때문에 교훈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사실은 판소리나 탈춤과 같은 공연예술이 조선조 후기에 발생하여 널리 공연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들 앞에서 공개리에 무제한적으로 성 이야기가 생산, 소비된 것은 조선조 후기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성 이야기를 하나의 문화로 볼

18) 정하영은 『변강쇠가』를 비롯한 판소리계 소설의 성담론 방식은 문장체 소설의 성담론 표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는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확산과 조응하면서 성에 대한 금기가 급격히 사라지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19세기 말에 이르면 국가의 개방화가 확대되고 사회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에 대한 표현 방식도 종래와는 달라진다고 했는데(정하영, 앞의 논문, 183쪽), 김준형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는 오히려 성에 관한 이야기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때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는 김준형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19) 정병설 풀고섬, 『조선의 음담패설』, 예음, 2010, 132쪽.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 이야기를 대담하게 노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후기라는 특별한 시대의 산물이며, 이 시대를 특징짓는 문화의 하나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변강쇠가』를 성적 표현의 문제로 국한해서 다루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것은 『변강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전반의 문제 곧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변강쇠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3. 『변강쇠가』에 나타난 갈등

3.1. 변강쇠/옹녀와 향촌사회

옹녀는 미인으로 그려진다.

평안도 월경촌에 계집 하나 있으며, 얼굴로 볼작시면 춘이월 반개도화 옥빈에 어리었고, 초생에 지는 달빛 아미간에 비치었다. 앵도순 고운 입은 빛난 당채 주홍필로 떡 들입다 꺾 찍은 듯, 세류같이 가는 허리 봄바람에 흐늘흐늘, 찡그리며 웃는 것과 말하며 걷는 태도 서시와 포사라도 따를 수가 없건마는, 사주에 청상살이 겹겹이 쌓인 고로 상부를 하여도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단콩 주워 먹듯하것다.²⁰⁾

위에 묘사된 바를 보면 옹녀는 미인인 것은 맞지만, 현모양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요부라고 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 옹녀는 청상살로 인하여 상부(喪夫)를 한다. 그것도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하는데, 일 년에 한 명씩 죽는다. 죽는 원인도 병(급상한, 당창병, 용천병)이나 사고(벼락), 범죄(대적), 자살(비상) 등 다양하기 그지없다. 다음부터는 기둥서방, 간부, 애부 등

20) 강한영 교수,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교문사, 1971, 533쪽. 이하 사설은 이 책의 페이지만 표시.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맺은 사람이 죽고, 마지막에는 거드모리, 새호루기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옹녀의 신체를 접촉한 사람들까지 죽는다. 여기서 옹녀에 대한 표현은 이제 “결단을 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앞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경우에는 남편의 죽음의 원인이 외적인 데 있다고 하면,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부터는 옹녀의 탓으로 표현된다.

상부의 내력을 보면 갈수록 남녀관계의 처지가 점점 악화되는데, 그에 따라 옹녀의 지위도 점점 전락하여 마침내 창녀의 처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과 전락이 모두 옹녀의 미모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옹녀의 아름다움은 사내들을 유혹하는 아름다움이며, ‘청상살’로 인하여 그 남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아름다움이다. 결국에는 “삼십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도 없어 계집이 받을 갈고, 처녀가 집을 이”(533, 535)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옹녀 때문에 농촌의 남성 노동력이 고갈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황해도 평안도 사람들이 공론하여 옹녀의 집을 헐고 추방한다. 집을 헐었다는 것은 향촌사회에서 옹녀의 근거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이다. 그만큼 향촌사회의 옹녀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다.

변강쇠는 “천하의 잡놈으로 삼남에서 빌어먹다 양서로 가느라고, 연놈이 오다 가다 청석골”(535)에서 옹녀를 만나게 된다. ‘잡놈’은 ‘행실이 나쁜 남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이다. 변강쇠를 어떤 이유로 ‘잡놈’이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천생음골”(537)이라는 표현과 옹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격으로 보면 변강쇠가 성적으로 방종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강쇠는 “삼남에서 빌어먹다 양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변강쇠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다. 행실이 나쁜 데다가 빌어먹는 사람이라는 강쇠 또한 농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잡놈’이라는 표현을 보면 변강쇠는 일정한 생계 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빌어먹으면서도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생계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강쇠는 단순한 거지는 아니다. 양서로 가는 이유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삼남에서 강쇠를 용납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대낮에 당일 행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어 도방으로 가기로 하지만, 역시 한 곳에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원산, 강경, 포주 범성을 돌아다닌다.

연놈이 손목 잡고, 도방 각처 다닐 적에 일 원산 이 강경이 삼 포주 사 범성이 곳곳이 찾아 다녀, 계집년은 애를 써서 들병장사 막장사며 낮부림 녀장질에 돈냥 돈관 모아 놓으면, 강쇠놈이 허망하여 땃 냥 내기 방패리기, 두 냥 패에 가보하기, 갑자꼬리 여슈하기, 미골회패 퇴기질, 호홍호백 쌍륙치기, 장군명군 장기두기, 맞춰먹기 돈치기와 불러먹기 주먹질, 걸개두기 웃놀이와, 한 집 두 집 고누두기, 의복 전당 술먹기와 남의 싸움 가로막기, 그 중에 무슨 비위 강새암, 계집치기, 밤낮으로 싸움이니 암만해도 살 수 없다.

하루는 저 여인이 강쇠를 달래되, 『집의 성기 가지고서 도방 살림 하다가는 돈 모으기 고사하고 남의 손에 죽을 테니, 심산궁곡 찾아 가서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산전이나 파서 먹고, 시초나 배어 때면 노름도 못할 테요 강짜도 안 할 테니 산중으로 들어갑세.』(541, 542)

인용문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의 형편은 도시 생활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옹녀는 창녀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강쇠는 갖가지 노름이며, 술먹기, 싸움질로 세월을 보낸다. 결국 두 사람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산속으로 떠난다. 이렇게 보면 일단 옹녀와 강쇠는 유랑민이라고 할 수 있다. 서종문은 강쇠를 “유랑하는 인간상의 전형을 보이는 것”²¹⁾이라고 하였다. 옹녀와 강쇠는 농촌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랑하는 인간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한 유랑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김종철도 “유랑민이란 토지를 상실하여 향촌 사회에 생업의 터전을 갖지 못한 백성이 타관으로 유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때, 강쇠와 옹녀는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일치²²⁾한다

21) 서종문, 『판소리 사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7, 235쪽.

22) 김종철, 『『변강쇠가』의 미적 특질』,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1993,

고 하였다. 옹녀는 몸을 파는 일을 하며, 강쇠는 온갖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단순한 유랑민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강쇠와 옹녀는 기원적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된 인물들이다. 이 추방은 단순히 강쇠와 옹녀의 행위나 그 성격에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폭넓게 진행된 마을(농촌)공동체의 계층분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강쇠나 옹녀는 토지를 상실한 무토지민(無土之民)으로 농촌공동체에서 유리되어 도시로 유입된 존재들인 것이다.²³⁾

이런 이유로 김종철은 강쇠를 “룸펜형 건달”²⁴⁾로 보면서도 왈자는 아니라고 하였다.²⁵⁾ 서울의 왈자들은 “자기 돈을 써 가며 기부 노릇을 하기도 하는 인물들이나 변강쇠는 옹녀를 등쳐먹는 인물로서” “지방의 성읍이나 소도시에 있기 마련인 부정적 인물”²⁶⁾이라고 한다.

결국 옹녀와 강쇠는 농촌사회의 계층분화에 의해 생성된 빈민들이다. 옹녀는 거둬드는 상부로 인해 점점 전락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하다 향촌사회에서 쫓겨나는 천민이며, 강쇠는 토지를 갖지 못해 생산에 종사하지 못하고, 온갖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으며 기생하는 건달로서 역시 향촌사회를 등진 인물이다. 이들은 다 조선조 후기 농촌사회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파생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체제의 모순을 외화(外化)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19세기 농촌사회 계층분화 과정의 희생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옹녀와 강쇠는 일방적으로 비난의 대상, 축출의 대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들의 성적 일탈, 방종은 향촌사회의 비난과 축출을

276-277쪽.

23)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36쪽.

24) 김종철, 앞의 논문, 281쪽.

25) 한편 박일용은 강쇠를 ‘왈자’ 또는 ‘하층 건달’로 규정하였다.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1, 172-179쪽 참조.

26) 김종철, 앞의 논문, 281쪽.

정당화하는 구실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은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치환되어 은폐된다. 그러니까 강쇠와 옹녀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은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렇지만 작품 속에서는 이들이 부도덕한 인물로만 묘사된다. 다음과 같은 박일용의 견해도 이와 유사하다.

강쇠와 옹녀를 “잡놈”, “잡년”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서술자의 시각은 당대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것으로서, 사회 변동의 결과로 산출된 새로운 현상을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 재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적으로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²⁷⁾

박일용에 의하면 강쇠와 옹녀가 잡놈, 잡년이 되는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발생한 모순을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 재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쇠와 옹녀를 추방하는 향촌사회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혹은 전통적인 도덕률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갈등은 전통적인 윤리 또는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향촌사회와 그 변화 속에서 가진 것이 없어 성적 방종과 일탈로 빠져든 새로운 사회현상을 대표하는 강쇠/옹녀의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에 위반된 행태를 보인 이들에 대한 향촌사회의 처벌이 향촌사회로부터의 축출, 곧 “사회적 살인”²⁸⁾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향촌사회로부터 축출당한 강쇠와 옹녀는 도시로 흘러든다. 그렇지만 도시에서도 그들의 삶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도시는 또 나름 대로의 견고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쇠같이 가진 것 없는 농촌형 건달 혹은 림펜형 건달은 자기 돈을 써가며 향락을 즐기는 도시의 왕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옹녀에게 기생하면서 끊임없이 옹녀를 수탈한다. 이러한 강쇠와 옹녀의 갈등 관계는 가부장제라는 당시의 지배질서의 또 다른 모순에서 생겨난다. 박일용은 이를 (강쇠가) 농촌에서 유리되어 도시로 유랑하는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도 가부장제의 힘을 빌어 옹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수탈하

27) 박일용, 앞의 논문, 195쪽.

28) 이정원, 앞의 논문, 469쪽

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⁹⁾

결국 강쇠/옹녀와 향촌사회의 갈등은 그 하위 범주로 강쇠와 옹녀의 갈등을 낳는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갈등은 중층적이다. 『변강쇠가』의 갈등이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강쇠가 하층민으로서 체제의 모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수탈하는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2. 강쇠와 장승

옹녀와 강쇠는 도방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지리산으로 흘러든다. 그들이 흘러들어간 지리산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남 지리 토후하여 생리가 좋다 하니 그리로 찾아 가세. 여간 가산 짙어지고 지리산중 찾아 가니 첩첩한 깊은 골에 빈 집 한 채 서 있으되, 임진왜란 팔년 간과 어떤 부자 피란하자 이 집을 지었던지 오간팔작 기와집이 다시 사람 산 일 없고, 흥가로 비어 서서 누백년 도깨비 동청이요, 뗏 귀신의 사랑이라. 거친 뜰에 있는 것이 삶과 여우 발자취요, 깊은 뒤꼍 우는 소리 부엉이, 올빼미라.(543)

강쇠와 옹녀가 찾아간 곳은 집은 그럴싸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사람이 살지 않고 도깨비와 귀신, 삶과 여우, 부엉이, 올빼미만 사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전란 때에나 사람이 살고 평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회 밖의 공간”³⁰⁾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곳에서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강쇠와 옹녀가 아무리 당시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옹녀의 말은 자신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9) 박일용, 앞의 논문, 176쪽.

30) 박일용, 앞의 논문, 187쪽.

여보 낭군 들으시오, 천생만민필수지직 사람마다 직업 있어 양사부모하육쳐 자 녀덕히 한다는데 낭군 신세 생각하니 어려서 못 배운 글 지금 공부할 수 없고, 손재주 없었으니 장인질 할 수 없고, 밀천 한 푼 없었으니 상고질할 수 있다. 그 중에 할 노릇이 상일밖에 없으니, 이 산중 살자 하면 산전을 많이 파서 두테 서속 담배 갈고, 갈퀴나무 비나무며 물거리 장작패기 나무를 많이 하여 집에도 때러니와 지고 가 팔았으면 부모 없고 자식 없고 단 부처 우리 들이 생계가 녀덕할새, 건강한 저 신체에 밤낮으로 하는 것이 잠자기와 그 노릇뿐. 굶어 죽기 고사하고 우선 얼어 죽을 테니 오늘부터 지게 지고 나무나 하여 읍쇼.(545)

위 인용문을 보면 강쇠는 아는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노동일밖에 할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란 잠자기와 그 노릇뿐이니, 우선 얼어 죽지 않게 나무나 해오라고 용녀는 강쇠를 재촉한다. 강쇠가 할 수 없어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러 가는데, 강쇠가 찾아가는 곳은 “나뭇군 모인 곳”(545)이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둥구마천 백모촌에 여러 초군 아이들이 나무하러 모여 와서 지게 목발 뚜드리며 방아타령, 산타령에 농부가, 목동가로 장난을 하는”(547) 광경이다. 이렇게 보면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생존에 실패한 강쇠는 사회 밖으로 축출된 후에도 늘 향촌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나무하러 가는 곳도 나무꾼이 모인 곳이며, 가다가 만난 것도 나무하러 온 초군들이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다.

그렇지만 일단 사회 밖으로 쫓겨난 강쇠에게 향촌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이어지는 ‘나무 내력’에서는 강쇠가 나무를 하자고 한들 나무들이 다 내력이 있어서 “빨 나무 전혀 없다”는 현실을 확인한다. 강쇠같은 사람에게에는 아예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낮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 장승을 뿔아 오고 만다.

장승의 기능은 마을과 사찰, 읍성의 수호와 이정표의 기능이다.³¹⁾ 그런데

31)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2, 한겨레신문사, 1997, 218쪽.

강쇠가 빼 온 장승은 “둥구마천 가는 길”에 서 있는 장승이다. 길가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정표의 기능을 하는 장승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경계 표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것³²⁾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강쇠가 뽑아 온 장승이 경계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경계 밖으로 쫓겨난 강쇠와 같은 인물들과 경계 안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쇠가 그 장승을 뽑아버린 것은 경계를 무너뜨린 행위로서 경계 내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장승들은 강쇠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변강쇠가』의 장승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강엽은 나약한 천민의 상징으로 보았으며,³³⁾ 정병현은 정착민으로 보았다.³⁴⁾ 서종문은 장승을 지배층으로 보기도 했다.³⁵⁾ 정지영은 장승을 “죽어 있는, 즉 화석화된 조선 사회의 규율 또는 그 규율을 떠받들며 살아가는 지배층을 상징”³⁶⁾한다고도 했다. 장승들이 강쇠를 징치하는 방식은 범법자를 처벌하는 관원사회의 행위 유형을 닮았다. 그렇다고 장승이 지배계급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강쇠에게 뽑힌 장승이 “의지할 곳이 없어 중천에 떠서 울며, 나혼자 다녀서는 이놈 원수 못 갚겠다.”(553)고 대방 장승을 찾아가 원정하는 모습이나, 강쇠한 사람을 징치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장승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장승이 힘이 있는 지배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힘도 없고 전국 어디에나 흩어져 있다면 장승은 보통 사람들에 가까운 존재임이 분명하다. 김종철도 장승을 관권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강쇠의 의식이 관권에 의식적인 저항을 할 만큼 예각적인 것도 아니며, 그는 또 관권의 수탈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극빈층”³⁷⁾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장승은 형상이나 행동

32) 서종문, 『장승 민속의 문학적 형상화』, II, 『국어교육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1990, 18쪽.

33) 이강엽, 『신재효 『변강쇠가』의 성과 죽음의 문제』, 『열상고전연구』 제6집, 열상고전연구회, 1993, 204쪽.

34) 정병현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연구』, 평민사, 1986, 151쪽.

35) 서종문, 위의 논문, 15쪽.

36) 정지영, 위의 논문, 363쪽.

방식은 관원을 닮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보통사람 곧 향촌사회의 일반 구성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승들의 정치로 강쇠는 수만 가지 병이 들어 “피고름 독한 내”(561)를 풍기며 앓다가, 옹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뚝 서서 험악한 모습으로 죽고 만다. 이정원은 이에 대해, “(강쇠의) 치료 불가능한 육체는 그 자체로 변강쇠의 교화 불가능한 인성에 대한 은유”이며, 험악한 강쇠의 죽음의 모습은 “불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에 대한 공동체의 혐오가 이런 형상들로 구체화된 것”³⁸⁾이라고 하였다. 정곡을 찌른 말이긴 하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관점이 바로 장승 안의 사람들, 곧 향촌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의 견해를 대변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향촌사회 구성원들은 강쇠와 같은 무리들을 교화 불가능한 인간들로 보았으며, 이들에 대해 극심한 혐오감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강쇠를 정치하기 위해 수많은 장승이 동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강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장승이 약하다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힘없는 함양장승도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함양장승이라는 개별존재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보복의 문제였지만 장승 전체로 볼 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므로 대방장승은 전국의 동관들에게 사발통문을 보내어 변강쇠를 징계할 뜻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바로 개인문제의 사회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더 세심히 논의할 필요를 느낀다.³⁹⁾

이강엽에 의하면 장승들의 집단적인 정치의 원인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장승을 뽑은 강쇠의 행위는 장승에게는 집단 전체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계 내의 향촌사회는 강쇠로 대표되는 사회 밖으로 쫓겨난 존재들에 대한 공포심이 극심했음을 보여

37) 김중철, 앞의 논문, 277쪽.

38) 이정원, 앞의 논문, 474쪽.

39) 이강엽, 『신재효 『변강쇠가』의 성과 죽음의 문제』, 『열상고전연구』 제6집, 열상고전연구회, 1993, 218쪽.

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강쇠와 장승의 갈등은 향촌사회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과 향촌사회 내의 사람들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장승이 향촌사회를 지키는 경계를 나타낸다면, 장승을 뽑은 강쇠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향촌사회로의 복귀를 꿈꾸다가 향촌사회의 집단적 대응에 의해 험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다. 이는 조선 후기 향촌사회가 자신들의 모순이 생산한 인간들인 떠돌이 빈민들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3.3. 강쇠와 유랑민들

『변강쇠가』의 마지막 갈등은 강쇠 치상을 위해 옹녀가 유인한 사람들과 죽은 강쇠의 갈등이다. 강쇠는 장승을 뽑아 불을 땀다는 이유로 장승들로부터 더 치지를 당해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의 모습은 의미심장하다.

「…… 전략 …… 자네 정경 가궁하니 아무리 살자 하되 내 병세 지독하여 기어이 죽을 테니 이 몸이 죽거들랑 염습하되 입관하기 자네가 손수하고, 출상할 제 상여 배행, 시묘 살아 조석 상식 삼년상을 지낸 후에 비단 수건 목을 줄라 저승으로 찾아오면 이생에 미진연분 단현부속되려니와, 내가 지금 죽은 후에 사나이라 명색하고 십세전 아이라도 자네 몸에 손 대거나, 집 근처에 열른 하면 즉각 급살할 것이니 부디부디 그리하소.」

속옷 아구대에 손김을 풀썩 넣어 여인의 보지 쥐고 으드득 힘 주더니 불끈 일어 우뚝 서며, 긴장한 두 다리는 유연전을 쏘려는지 비정비팔 빗디디고, 바위 같은 두 주먹은 시왕전에 문지긴지 눈 위에 높이 들고, 경쇠당이 같은 눈은 흥문연 번쾌런지 찢어지게 부릅뜨고, 상투 풀어 산발하고, 혀 빼어 길게 물고, 짚동같이 부은 몸에 피고름이 낭자하고, 주장군은 그저 삐뻔, 목구멍에 숨소리 딸깍, 콧구멍에 찬 바람 왜, 생문방 안을 하고 장승 죽음하였구나.(569, 571)

위 인용문의 앞부분은 강쇠의 유연이며, 뒷부분은 강쇠 주검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대개 앞부분의 강쇠 유연에 중점을 두고 『변강쇠가』를

해석하였다. 그래서 강쇠의 죽음이 원통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강쇠의 유언을 저주로 보며, 치상과정에서 옹녀에게 접근하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강쇠의 저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정원은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는 까닭은, 그의 원한에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⁴⁰⁾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김종철은 “강쇠가 원혼이 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를 작품 내에서 찾기 힘들다”⁴¹⁾고 하였다. 다만 작품 내에서는 강쇠의 죽음을 원통한 죽음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텃득이나 계대패들이 땅에서 떼어달라고 간절히 빌 때 이들은 강쇠의 죽음을 원통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원혼이라 삼현을 걸게 치고, 녀두리를 하였으면 귀신이 감동하여 응당 떨어질 듯하다.”(613),

“지하에 맨 데 없고, 인간에 주인 없어 원통히 죽은 혼이 시체 지켜 있는 것을……” (615),

“천고에 의기남자 원통히 죽은 혼이 지기지우 못 만나면 위로할 이 누 있으리.”(615)

“원통하고 분한 마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뺏뺏 선 장승 송장.”(617)

이처럼 작품의 문면에 드러난 대로 강쇠의 죽음을 원통한 죽음으로 보면 유랑인들이 강쇠를 치상하려다가 죽은 것은 강쇠의 원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강쇠는 장승을 뽑아다 뺏다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강쇠의 죽음은 장승의 원한으로 인한 징치의 결과일 뿐, 강쇠 자신이 원한을 가질 일이 아니다. 원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승에 대한 원한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쇠는 옹녀에게, “내가 지금 죽은 후에 사나이로 명색하고 십세전 아이라도 자네 몸에 손대거나, 집 근처에 얼른하면 즉각 급살할 것”이라고 한다.

40) 이정원, 앞의 논문, 478쪽.

41) 김종철, 앞의 논문, 288쪽.

자신의 죽음이 원통했다면 자신을 죽게 한 장승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이 유언에는 장승에 대한 원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언은 무엇인가? 엉뚱하게도 이 유언에서는 자신과 함께 살았던 옹녀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는 옹녀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저주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지영은 강쇠가 “장승 동티로 죽으면서도 장승의 가치를 더욱 내면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장승의 가치는 “가부장적 질서”라고 하였다. 실제로 인용문의 뒷단락을 보면 강쇠가 “장승 죽음”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형상은 두 다리를 빗디디고, 주먹을 높이 들고, 눈을 부릅뜨고, 상투 풀어 산발하고, 혀를 빼물고, 몸에 피고름이 낭자하고, 주장군은 뺨뺨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묘사된 모습은 장승과 흡사하다. 물론 상투 풀어 산발하고, 혀를 빼물고, 몸에 피고름이 낭자하고, 주장군은 뺨뺨한 모습은 보통의 장승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장승의 모습을 닮아 있다. 곧 강쇠는 죽어서 장승이 된 것이다. 강쇠는 장승이 되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향촌사회에 대한 원망이나 적대감을 엉뚱하게도 옹녀에 대한 열녀 요구로 치환한다.

그런데 이는 강쇠와 옹녀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 보아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유랑인들에 대한 복수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을 죽게 만든 장승으로 상징되는 향촌사회에 대한 복수는 없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복수를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언의 형식적 주체에 얽매이지 말고 유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실질적 주체로 관점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강쇠의 유언은 강쇠의 말이 아니라, 강쇠의 입을 통하여 표현된 향촌사회의 요구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향촌사회의 요구가 강쇠의 죽음을 자신들의 윤리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아 내세운 셈이다. 죽은 강쇠는 강쇠가 아니라 향촌사회를 지키는 장승이다.

이렇게 보면 강쇠의 치상과정에서 수없이 죽어나가거나 땅에 붙어 징치를 당하는 유랑인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유랑인들은 강쇠의 원한으

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강쇠의 죽은 몸이 대리하는 향촌사회에 의해 벌을 받는다. 강쇠는 향촌사회의 요구가 투사된 대상이다. 그런데 치상과정에서 보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벌의 정도가 다르다.

먼저 옹녀가 강쇠를 치상만 해주면 같이 살겠다고 해서 나섰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중(산나비), 초라니, 풍각장이패 5명(가객, 통소장이, 검무장이, 가얏고 놀던 사람, 북 치던 늙은 총각) 등 일곱 명이 해당된다. 이들은 치상만 해주면 같이 살겠다는 옹녀의 유혹에 넘어가 치상은 문제없다며 자신을 보이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그 외에 뱀득이와 각설이패 셋은 송장을 치우려다가 땅에 붙은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 뱀득이는 서울 사는 김서방인데, “마누라 일색으로 가군이 험사하여 치상하여 주는 사람 작배하여 살잔 말이 삼남천지 들썩하여 사람마다 전하기에 불원천리 찾아온”(597) 사람이다. 그러나 뱀득이는 강쇠의 송장을 보고는 도망가려 하다가 옹녀의 애원으로 떡메로 벽을 쳐서 송장을 떨어뜨린다. 각설이패 세 명은 옹녀가 떨어진 송장을 짚어지고 가기 위해 샅군을 사러 갔다가 돈을 준다면서 데려온 사람들이다. 이들 네 사람은 죽지 않고 송장을 지게에 짚어지고 가다가 쉴 때 땅에 붙어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죽은 일곱 명과 죽지 않은 네 명은 강쇠의 시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죽은 일곱 명은 강쇠의 시신을 무시하지만, 뒤의 네 사람은 강쇠의 시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죽은 강쇠를 향촌사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향촌사회의 내부를 지키는 장승으로 본다 면,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송장을 짚어지고 가다가 땅에 붙어버린 후에 만나는 움생원, 사당걸사, 옹좌수, 옛장수, 계대패 등은 땅에 붙은 사람들을 떼어내기 위해 굶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애초부터 옹녀가 치상만 하면 같이 살겠다고 유혹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굶을 하면서 비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주 동지 자네 신세 부처님의 제자로서 선공부 경문 외에 계행을 닦았더라면

흰 구름 푸른 피에 간 데마다 도방이요, 비단 가사 연화탑에 열반하면 부처될 새 잠시 음욕 못 금하여 비명횡사 거적 송장. 출침지 자네 정경 동냥 고사 천업이라, 낮에는 탈을 쓰고, 목에는 장고 메고, 돈푼 쌀줌 연자 하고 이집 저 다닐 적에 따른 것이 아이들과 짓는 것이 개소리라, 탄 분복이 이러한데 가량 없는 미인 생각 제 명대로 못다 살고 남의 집에 불음송장. 풍객 한량 다섯 분은 오입 맛이 한통속. 왕별목장 춘향가 가객이 앞을 서고, 가얏고 삼방곡 톱소 소리 봉장취 연풍대 칼춤이며, 서서 치는 북 장단에 주막거리 장관이며, 큰 동네 과시평에 동무 지어 다니면서 풍류로 먹고 사니 눈치도 환할 테요, 경계도 알 터인데 송장을 쳐 낸대도 계집은 하나뿐, 누구 혼자 좋은 꼴 비자 한꺼번에 달려들어 한날 한시 못태 송장 여덟 송장 각기 설움 다 원통한 송장이라. 살았을 제 집이 없고 죽은 후에 자식 없어 높은 피 깊은 구렁 이리저리 구는 뼈를 물어줄 이 누 있으며, 슬픈 바람 지난 달에 애고애고 우는 혼을 조상할 이 누 으리. 생각하면 허사도다, 심사 부러 쓸 데 있다. 이생 원통 다 버리고 지부명 왕 찾아가서 절절이 원정하여 후생의 복을 타서, 부귀가에 다시 생겨 평생행락 하게 하면 당신네 신체들은 청산에 터를 잡아 각각 후장한 연후에 연년기일 돌아오면 내가 봉사할 것이니 제발 덕분 떨어지오.” 애근히 빈 연후에 네 놈 불끈 일어서니 모두 다 떨어졌다.(615, 617)

죽은 사람들은 잠시 음욕을 품은 잘못은 있으나 다 나름대로 원통함이 있다고 한다. 그 원통함이 시체를 짊어진 사람들을 땅에 붙여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원통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들의 힘든 삶이다. “살았을 제 집이 없고 죽은 후에 자식 없어 높은 피 깊은 구렁 이리저리 구는 뼈를 물어줄 이”도 없고, “슬픈 바람 지난 달에 애고애고 우는 혼을 조상할 이”도 없다. 땅에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원통한 삶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생에 복을 타서 부귀가에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시체를 후장하고 제사를 지내준다는 말에 이들의 원한이 풀린다. 그래서 각설이패 세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물어주고 떠난다. 텃득이가 짊어진 송장 둘은 등에서 떨어지지 않아 같이질로 같이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이 부분의 갈등은 향촌사회의 내부를 지키는 장승의 이념을 상징하는 강쇠의 주검과 옹녀에게 음욕을 품고 강쇠를 치상하려 달려드는 유랑민들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강쇠는 죽어서 향촌사회의

장승이 됨으로써 향촌사회를 지키기 위해 향촌사회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징치한다. 그래서 강쇠/장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옹녀를 차지할 생각으로 치상을 하려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강쇠/장승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치상 과정에 참여하려 한 소극적인 참여자들은 땅에 붙었다 떨어지는 곤욕을 치른 후에 살려준다.

이렇게 보면 『변강쇠가』는 시종일관 조선조 후기 농촌사회의 계층 분화과정에서 배태된 부정적 인물인 강쇠와 옹녀,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밖으로 축출되어 유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향촌사회의 자기 보호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강쇠와 옹녀뿐만 아니라 다른 유랑민들도 다 향촌사회의 모순이 생산해 낸 인물들이다. 그러면서도 향촌사회는 이들의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자기합리화에 치중한다. 『변강쇠가』에 나타나는 과도한 성적 표현과 일탈은 바로 이 과정에서 향촌사회가 이들에게 씌운 부정적 이미지라고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변강쇠가』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재정리하여 해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강쇠가』에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것은 적나라한 성에 관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적 관점에서 『변강쇠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을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강쇠가』에서의 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일 뿐이다.

『변강쇠가』에 나타난 갈등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강쇠/옹녀와 향촌사회와의 갈등이며, 둘째는 강쇠와 장승과의 갈등, 셋째는 강쇠와 유랑민과의 갈등이다.

강쇠와 옹녀는 조선조 후기 농촌사회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생성된 빈민들

로, 체제의 모순을 외화(外化)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과도한 성적 행위와 일탈을 보이는 것은 당시 향촌사회가 자체 모순을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로 치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강쇠와 옹녀가 만나 도시로 흘러든 뒤에는 강쇠가 옹녀를 수탈하게 되는데, 이는 강쇠가 사회적 모순에 항거하지 않고 체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수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강쇠/옹녀와 향촌사회의 갈등의 하위 구조로 강쇠와 옹녀의 갈등이 나타난다.

강쇠와 장승의 갈등은 사회 밖으로 쫓겨난 강쇠와 향촌사회의 갈등이다. 장승은 사회 밖으로 축출된 유랑민으로부터 향촌사회 내부를 지키는 경계 표지다.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강쇠와 옹녀는 사회 밖의 공간인 지리산으로 들어가지만, 끊임없이 향촌사회에 복귀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 밖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강쇠가 장승을 빼다 때는 행위는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강쇠는 장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강쇠의 죽음은 사회 밖으로 축출된 이들의 도전에 대한 경계 안의 공동체의 응징이다. 이는 향촌사회가 자체 모순으로 발생한 떠돌이 빈민들에 대해 얼마나 강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변강쇠가』에 나타난 마지막 갈등은 강쇠 치상을 위해 옹녀가 유인한 사람들과 죽은 강쇠의 갈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쇠의 주검을 장승으로 보았다. 강쇠 유인은 강쇠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향촌사회의 요구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쇠는 죽어서 향촌사회를 지키는 장승이 된 것이다. 징치를 당하는 유랑인들은 강쇠의 원한으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강쇠의 죽은 몸이 대리하는 향촌사회에 의해 징치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변강쇠가』는 시종 일관 조선조 후기 농촌사회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배태된 부정적 인물인 강쇠와 옹녀,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밖으로 축출되어 유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향촌사회의 자기 보호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쇠와 옹녀뿐만 아니라 다른 유랑민들도 다 향촌사회의 모순이 생산해 낸 인물들이다. 향촌사회는 이들의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체제유

지를 위한 자기합리화에 치중한다. 『변강쇠가』에 나타나는 과도한 성적 표현과 일탈은 바로 이 과정에서 향촌사회가 이들에게 씌운 부정적 이미지이다.

판소리는 새로운 가치와 전래의 가치의 충돌을 그리고 있다. <춘향가>의 변학도나 <홍보가>의 홍보가 대표하는 것은 전래적인 낡은 윤리와 가치이며, 춘향과 놀부가 대표하는 것은 새로운 윤리와 가치이다. 이 두 가지 윤리와 가치의 충돌을 그린 것이 판소리인 것이다. 『변강쇠가』 또한 이러한 판소리의 일반적 특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교문사, 1971.
- 김종철, 『『변강쇠가』의 미적 특질』, 『판소리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1993.
-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 김준형 옮김, 『조선 후기 성 소화 선집』, 문학동네, 2010.
- 김현룡 편역, 『고금소총』 4, 자유문학사, 2008.
- 박관수, 『『변강쇠가』의 음란성 재고』, 『고소설연구』 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문학회, 1991.
- 서종문, 「상승 민속의 문학적 형상화」Ⅱ, 『국어교육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1990.
- 서종문, 『판소리 사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7.
- 이강엽, 「신재효 『변강쇠가』의 성과 죽음의 문제」, 『열상고전연구』 제6집, 열상고전연구회, 1993.
- 이정원, 『『변강쇠가』의 성 담론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제2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 정병설 풀고섬, 『조선의 음담패설』, 예옥, 2010.
- 정병현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연구』, 평민사, 1986.
- 정병현, 「판소리의 전승과 공간적 배경의 관계 연구」, 『판소리연구』 제25집, 판소리학회, 2008.
- 정하영, 『『변강쇠가』 성담론의 기능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1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조동일, 「판소리의 전반적 성격」,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78.
-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2, 한겨레신문사, 1997.

【Abstracts】

Elements of Conflict in the *Byeongangsoega* from a Cultural Perspective.

Choe Tong-hy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spects of conflict expressed in *Byeongangsoega* from the cultural perspective. The results are as below.

There are three representative conflicts in the *Byeongangsoega*. The first is the conflict between Gangsoe/Ongnyeo and rural community society. The second is that of between Gangsoe and Jangseung(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at the entrance of village). The third is that of between Gangsoe and the nomadic people.

Gangsoe and Ongnyeo are the poor, appeared from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of hierarchy of rural community in the late Josun dynasty. They are the people who revealed the contradiction of social system. The reason why they showed the deviant sexuality is that the rural community substitutes its contradiction for the personal ethics matter.

The conflict between Gangsoe and Jangseung is the conflict between Gangsoe who is expelled from the community and the rural community society.

The last conflict is that of the people between the nomadic whom Ongnyeo lured to have a funeral of Gangsoe and dead Gangsoe. In this study the body of Gangsoe is considered to be Jangseung. Gangsoe became the Jangseung after death. So that the nomadic are disciplined by

Jangseung. It means that they are disciplined by the rural community society that is the substitute of Gangsoe's dead body.

Key words: *Byeongangsoega*, cultural conflict, rural community society, Gangsoe/Ongnyeo, Jangseung, nomadic people

이 논문은 2016년 1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